
「기후리스크 관리 · 감독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2021. 12. 8.

금융감독원

목 차

I. 기후리스크 관리 · 감독 추진현황	1
①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 마련	1
② 「금융권 기후리스크 포럼」 신설 및 운영	2
③ 기후리스크 관련 인식 및 저변 확대	2
II. 기후리스크 관리 · 감독 관련 향후계획	3
① 기후리스크 심포지엄 개최	3
② 기후리스크 지침서 안정적 정착 유도	3
③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모형 개선	4

I. 기후리스크 관리·감독 추진현황

- ☒ 기후리스크 관리·감독을 위해 ^①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, ^②금융권 기후리스크 포럼, ^③기후리스크 인식·저변 확대 등 3개 과제 추진

①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 마련

- ☐ 금융회사 「기후리스크 관리·감독계획」의 일환으로 「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」를 마련

- 동 지침서는 주요 해외 금융당국의 기후리스크 가이드라인 사례 검토, 금감원내 유관 부서 및 금융회사 의견 조회*를 거쳐 작성

* 금감원내 기후리스크 원내협의체 및 금융권 기후리스크 포럼 설립

- 국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현황이 다소 미흡한 점을 감안, 금융권의 관리능력 향상 지원에 중점*을 두고 규제적 성격을 배제

* 고급 계량기법(시나리오 분석, 스트레스테스트 등)이 요구되거나 권역별 특이사항(손해보험의 자연재해보험 등)과 관련되는 내용은 추후 반영 검토

- ☐ 기후리스크 관련 금융회사의 ^①사업환경 및 전략, ^②지배구조, ^③리스크 관리, ^④공시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

[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 주요내용]

- ① (사업환경 및 전략) 금융회사의 사업환경에 따라 적절한 기후리스크 관리전략 마련
- ② (지배구조) 기후리스크 관리를 위한 이사회, 업무집행책임자 등의 역할 및 책임 지정
- ③ (리스크관리) 기후리스크 관리·평가 체계, 모니터링, 내부역량 구축 등 시스템 지정
- ④ (공시) 잠재적 영향이 있는 익스포저 규모 등 기후리스크 관련 공시내용 지정

② 「금융권 기후리스크 포럼」 신설 및 운영

- 금융위, 금감원, 5개 금융권역별 협회 및 28개 금융회사가 함께 「금융권 기후리스크 포럼」을 신설
 - '21.5월, 키포프 미팅을 개최하고, 각 업권별 기후리스크 대응 현황 및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(초안) 등을 논의

「금융권 기후리스크 포럼」 개요

- 구성 : 금융위, 금감원, 5개 협회(은행, 금투, 생·손보, 여전) 및 5개권역 28개사
(자문 : 금융연구원, 보험연구원, 국제기구(UNEP-FI, GCF))
※ 학계 등 기후리스크 자문단 추가 확대 검토
- 역할 : 기후리스크 대응 관련 업권별 우수사례 발굴, 「기후리스크 지침서」
이행을 위한 전략·지배구조·리스크관리·공시 방안 협의 등

- 동 포럼은 국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 관련 대응현황 점검 및 실무 대응방안 협의를 위해 매우 유익한 장(場) 으로 역할*

* 권역별 주요 현안사항이 상이할 수 있어 향후 업권별 소그룹 신설 등을 검토

③ 기후리스크 관련 인식 및 저변 확대

- '21.10월, 국제기구(IPCC), 해외감독당국(영란은행), 국내외 금융사(ING, KB) 등의 기후리스크 대응사례를 소개하는 국제컨퍼런스*를 개최

* 주제 : Toward the era of F-I-N; Finance, Industry, Nature

- 금융회사, 학계, 연구소, 언론 등에서 300여명이 비대면 청중으로 참석하여 기후변화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 등 혁신사례를 청취
- 관련 행사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기후리스크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세미나, 심포지엄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

II. 기후리스크 관리 · 감독 관련 향후계획

① 기후리스크 심포지엄 개최

- 금융회사들의 기후리스크 관리 관련 가이드스 제공 요청에 따라 국내 금융권을 대상으로 기후리스크의 실무적 개념을 설명하고 사례를 발표하는 「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심포지엄*」 실시
 - * (일시 · 장소) '21.12.10.(금), 이화여대 ECC내 이삼봉홀(지하 4층)
-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대면 참석자는 기후리스크포럼 참여 기관별 1인으로 제한하되, 전체 금융사에 실시간 중계 제공
 - * (개요) ①개회사 및 전문가 특강, ②국내외 감독당국 추진업무 및 연구결과, ③국내외 금융권 기후리스크 사례 발표 등으로 구성할 계획
- 아직 기후리스크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측면을 감안, 추후 컨퍼런스, 세미나 등 기후리스크 인식 제고 방안 지속 추진

② 기후리스크 지침서 안정적 정착 유도

- 각 업권별로 「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」와 기후리스크 관련 금융사 자체 내부기준과의 겹 분석*을 실시('22년 2분기)
 - * 금융회사별 내부 지침과 기후리스크 관리지침과의 차이점 진단
- 「금융권 기후리스크 포럼」은 권역별 「기후리스크 지침서」의 도입사례 및 노하우 공유, 애로사항 청취 창구로 활용
- 동 지침서를 활용하여 전 금융사 대상 기후리스크 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하고, 기후리스크 영향이 큰 은행, 보험사 등을 중심으로 기후리스크 대응체계 우수사례(Best Practice) 공유

3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모형 개선

□ 기후변화 · 고탄소 산업 관련 자산가치 하락 등 기후경제 시나리오 분석 및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

○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(‘20.12월)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*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(‘21.10월) 등을 시나리오에 반영

* 온실가스배출량을 2017년 배출량 대비 24.4% 감축하도록 1차 수정(‘20.12월)된 이후 2018년 배출량 대비 40% 감축으로 재차 상향(‘21.10월)

□ 금융권 공동작업반을 구성하여 기후경제 시나리오* 및 모형에 따른 건전성 변동 등을 분석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시범실시(‘22년)

*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성 및 분석을 위하여 기후경제통합모형에 따라 기후리스크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(연구용역 진행중)